

건강 칼럼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렸다면?... 응급 대처법

나 들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신나는 기분에 취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 불쑥 찾아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개화한 꽃들 사이로 꿀을 따기 위해 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동면에서 깨어난 뱀이 먹이를 찾아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벌에게 쏘이거나 뱀한테 물리는 안전사고와 대면할 수 있는 것.

야외활동 중 벌에 물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한 독침 제거가 중요

벌에 쏘였을 때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벌침을 신용카드 같은 얇고 단단한 물건으로 물린 자리 주변을 밀어 벌침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무리하게 힘을 주면 침 끝 부분에 남아있는 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벌침 끝 부분에는 독낭이라는 독주머니가 달려 있어 벌침을 핀셋이나 손으로 집어 뽑지 않도록 한다. 핀셋으로 집을 경우 독을 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상 원

울지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벌침을 제거한 후에는 환부를 물로 씻고, 얼음찜질을 해 열을 내리고 붓기를 가라앉힌다. 벌에 쏘인 부위는 국소적인 반응으로 부어오르게 되고 이어 통증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런 증상이 수일 동안 지속되다가 호전된다.

하지만 혈관부종에 의한 호흡곤란, 쇼크, 의식변화 등 정신증상이 나타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벌에 쏘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옷을 피하고, 자극성 있는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벌이 몸 가까이 접근한다면 손으로 쫓아내는 행동은 오히려 벌을 자극해 더 위험

할 수 있으니, 되도록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낮은 자세를 취해 벌이 자연스럽게 날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뱀에 물렸을 경우 위쪽 혈관 압박해야

캠핑을 많이 즐기는 봄철은 뱀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독사에 물렸을 경우 환자와 뱀을 격리 한 후 뱀독이 전신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상처 부위에서 심장과 가까운 부위를 옷가지나 손수건으로 가깝게 묶어주는 것이 좋다.

독을 제거하기 위해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거나 절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감염 및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제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또 상처부위에 알코올을 뿌리거나

찜질은 해서는 안 되며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물린 뱀의 모양, 색깔, 특징 등을 잘 기억하거나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 정보를 확보하면 독사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독사에 물린 경우 증상은 국소증상과 전신증상으로 나뉘는데 국소증상은 물린 부위의 통증, 부종, 수포형성과 조직의 괴사 등이 나타난다. 전신증상은 뱀독이 퍼졌을 때는 구역, 구토, 복시 및 시야 혼탁, 호흡곤란, 발열 그리고 어지러운 증상 또는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혈액응고장애, 콩팥기능부전, 폐부종 등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절하게 치료된 환자는 물린 부위의 상처 외에 대부분 별다른 문제없이 회복된다"며 "하지만 독사에 물린 후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치명적인 질환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장출혈이나 열복강, 또는 뇌졸중을 발생시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출처: 디트news24(http://www.w.dnews24.com)

독자제언

행락철 교통안전수칙 기억하세요

행락철을 맞아 봄꽃축제 및 체험학습 등 단체 이용객이 집중되면서 전세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봄철인 이 시기가 행락철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시기로 대부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락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운전자는 항상 출발 전 차량 상태 및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타이어와 공기압 마모 여부 등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출발 전 탑승객들 대상으로 안전표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과속 운전은 금해야 한다. 과속 운전으로 전북 도내 한 해 평균 사망자는 18명으로 전체 사망에 8%를 차지한다.

과속으로 인해 사고 났을 시 사고 1건 당 0.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일반사고보다 15배나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과속 운전과 더불어 급차로 변경 및 끼어들기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해야 한다.

세 번째, 졸음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협을 하는 행위이므로 주행 중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거나, 졸음쉘터 등 휴게소를 적극 활용하여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하는 것을 권한다. 행락철에는 분위기에 편승한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대형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만 지켜도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김민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밀크셰이크 맞은 영국 극우 패러디



20일(현지시간) 영국 북동부 뉴캐슬에서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러지가 밀크셰이크를 맞은 후 돌아서고 있다. 이날 패러지에 밀크셰이크를 던진 32세 남성은 "이는 내 할의권이다"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설

동부권의 발전은 특례군 지정이 답이다

동부권의 발전은 특례군 지정이 답이다. 전북도는 예전에 여러 번 선언한 게 있다. 동부권 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그 성취를 위해서 힘내야 한다. 이번에 또다시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사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전처럼 한 때의 흥선 날리기 같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동부권의 발전 관심사를 위해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동부권의 발전은 요원하다.

동부권에서 특례군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전북도는 동부권에 힘을 실어 주어야겠다. 동부권에 대한 발전은 지금이 기회이다. 전북도는 지난 십수년간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사를 말했지만 그게 그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동부권 발전 분위기에 열기를 더해야 한다. 그리고 특례군 지정을 위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 열기를 고조시키다가 힘에 부친다고 시큰둥해지면 곤란하다. 기존의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를 내려면 이번에 특례군 지정이 절호의 기회이다. 저번에도 말했거니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이쪽의 기대와 달라

지역 발전이 희망 사창에 그칠까 염려가 된다. 정부가 100만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고집하면 전북의 낙후는 더욱 심화된다. 동부권에 대한 특례군 지정도 그렇다.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 보류하도록 내버려두면 동부권의 인구 유출은 계속될 터이다. 전북도는 이런 때 지력을 보여야 한다. 그 지력이 없다면 그동안 있었던 전북 자존 선언이나 제육 찾기 선언은 그저 찾장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존을 공표하고 제육 찾기를 선언했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도는 2백만 도민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셀프 자존심일 뿐이다. 사실은 180만 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말이다. 동부권이 특례군으로 지정되도록 전북도는 지원해야 한다.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해야 한다. 국가의 광역시도 간 균등해지면 곤란하다. 기존의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를 내려면 이번에 특례군 지정이 절호의 기회이다. 저번에도 말했거니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이쪽의 기대와 달라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부처

전북도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말까지 아직은 기한이 길게 남아있지만 증액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해야겠다. 지난해보다 4649억 원이 많은 7조328억 원의 예산을 더 집행하게 됐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 없다. 새만금 SOC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해 1조 1186억 원을 확보한 것은 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역시나 만족을 말해선 안 된다. 전북의 낙후를 생각하면 8조원 예산이라도 부족하고 9조원 예산이라도 풍족을 말할 수 없다.

전북도는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지역 발전 매진 발언은 지난날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지만 지금은 정서가 다르다. 지역 발전 매진과 관련해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지역 발전 요구를 받아들이는 안 된다. 전북도가 예산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면 그 행보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전북의 낙후를 생각할때 8조원도 부족하고 9조원도 풍족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 경기의 흐름에도 민감해야 한다.

오래 전에 했던 말을 또 해야겠다. 전북의 소득 유출이 4조원대라는 보도가 있어서 말이다. 그 4조 원대의 유출이라는 것은 도내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크게 반성하고 분발해야 한다. 한 해 예산이 7조원대인데 지역에서 빠져 나가는 돈은 4조 원대라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 현실이 이러하면 전북도가 지역 발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북도는 제육 찾기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제육 지키기부터 제대로 챙겨야겠다. 지역 사회가 제육찾기를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큰 두통거리를 앓고 있다는 것은 통탄스런 일이다.

전북도는 도민의 열원에 응답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내일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쳐진 채로 있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는 발전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는 도민들의 주문은 한결 같다. 계속해서 지역 발전에 매진해 달라는 바람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